

평창 유치 위해 1년 10개월간 '지구 16바퀴'

(평창동계올림픽)

IOC위원 100명 직접 만나 유치 성공
경기장부터 홍보까지 물심양면 지원
10년 넘게 탁구협회장 100억 원 투자
대한항공 빙상팀·남자배구단도 운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70세.

한진그룹은 8일, "조 회장이 오전 0시 16분(한국시간)께 미국 LA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발표했다. 한진그룹은 공식 사인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조 회장이 폐가 굳어지는 질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국 체육계에 큰 힘을 보탠 인물이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 조 회장의 역할은 엄청났다. 국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든 소명의식으로 2009년 평창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았고, 유치위원장 재임 기간인 1년 10개월간 50차례에 걸친 해외 출장으로 약 64만km(지구 16바퀴)를 이동했다. 이 기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110명 가운데 100여명을 만나 평창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결국 유치가 성공했다.

조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12월 한국언론인연합회 주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서 '최고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1월에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중 첫 번째 등급인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훈했다. 그해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돼 체육계 전반을 책임졌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14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라는 중책을까지 맡아 지지부진하던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경기장 및 개·폐회식장 준공 기반

을 다졌고, 월드컵 테스트 이벤트를 선사하기도 했다.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스키 여제' 린지 본을 평창올림픽 첫 외국인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도 조 회장의 공이 컸다. 본은 2015년 6월 십자인대 부상으로 재활 중이었음에도 한국을 방문해 위촉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2016년 5월 조직위원장에서 사퇴한 뒤에도 대한항공에서 파견된 직원들 대다수를 조직위에 남겨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조직위에 파견된 한진그룹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외부 환경에 한 치의 동요 없이 당당하고 소신껏 행동하기 바란다"고 당부해 큰 울림을 남겼다.

조 회장이 체육계에 영향을 끼친 것은 비단 평창올림픽뿐만이 아니다. 탁구 사랑

도 대단했다. 2008년 7월부터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맡아 한국 탁구의 발전에 앞장섰다. 조 회장이 본격적으로 체육계에 첫발을 내디딘 시기가 이때다. 그룹 경영으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 현장을 방문해 힘을 실었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총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탁구를 위해 투자했다. 2011년 2월에는 대한항공 남자 스피드스케이팅팀을 창단해 선수들을 지원했다. 평창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 금메달리스트인 이소훈이 대한항공 소속이다.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남자 500m 금메달리스트 모테발도 빙상계를 떠나기 전까지 대한항공에 몸담았다. 남자프로배구단도 운영하는 등 고인의 뜻에 따라 대한항공은 한국 체육계 발전에 큰 힘을 보탰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약력	
1949년 ▶ 인천 출생	
1975년 ▶ 인하대 공과대학 공업경영학 졸업, 1979년 미국 남가주대 경영학 석사, 1988년 인하대 경영학 박사, 1998년 Embry Riddle 항공대학 항공경영학 명예박사, 2006년 우크라이나 국립항공대학 항공경영학 명예박사	
1974년 ▶ 대한항공 입사	
1984년 ▶ 정석기업 사장	
1989년 ▶ 한진정보통신 사장	
1992년 ▶ 대한항공 사장	
1995년 ▶ 아일랜드 명예총영사	
1995년 ▶ 한국항공대학(정석학원) 이사장	
1996년 ▶ 한진그룹 부회장	
1996년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1996년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1996년 ▶ 국제항공운송협회(ATA) 집행위원회 위원	
1999년 ▶ 대한항공 회장	
2000년 ▶ 한/불 최고경영자 클럽 회장	
2003년 ▶ 한진그룹 회장	
2008년 ▶ 대한탁구협회 회장	
2009년 ▶ 대한체육회 이사	
2009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	
2009년 ▶ 아시아탁구연합(ATTU) 부회장	
2010년 ▶ PEACE AND SPORT 대사	
2010년 ▶ 대한체육회 부회장	
2014년 ▶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2014년 ▶ 국제항공운송협회(ATA) 전략정책위원회 위원	
2014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스포츠동아 인사

〈승진〉 △편집장 엔터테인먼트부장 겸 사업팀장 윤여수 △편집부 차장 고창일 △스포츠부 차장 이경호 △엔터테인먼트부 차장 이혜리 △경제부 차장 김명근 △경영기획실 차장 신명근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체육계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 지대한 공을 세웠다. 1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 유치가 성공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 회장. 2 조 회장(왼쪽)이 미국 여자 스키 스타인 린지 본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있다. 3 직접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에 나선 조 회장. 뉴스+ 스포츠동아DB

한국 항공산업의 선구자, 평생 사랑했던 하늘로 이륙하다

99년 대한항공·2003년 한진 회장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한국 국격 높이는 민간외교관 역할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평생을 '수송보국(輸送報國) 일념 하나로 살아 온 한국 항공산업의 영원한 선구자였다. 조 회장은 194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에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첫째로 태어났다. 대한항공에는 1974년 입사해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올랐다. 조 회장은 재직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글로벌 항공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키웠다. 항공동맹체 스카이트팀(SkyTeam) 창설을 주도하고 세계 항공사들이 경영 위기로 움츠릴 때는 선제적 투자로 맞섰다. 항공업계가 대형공사(FSC)와 저비용공사(LCC) 경쟁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2008년 7월 진에어를 창립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창립5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은 보유 항공기 166대, 국제선 취항 43개국 111개 도시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했다. 국제선 여객은 1969년 창립 때 보다 154배 늘었으며 화물 수송량은 538배 성장했다. 매출액과 자산도 각각 3500배, 4280배 증가했다. 조 회장은 시스템 경영론을 늘 강조했다. 최고 경영자는 시스템을 잘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잘 발휘하게 조율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송업에서는 절대 안전이 필수적 요소이고 고객과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현장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항공사의 생명은 서비스라며 고객중심 경영에 중점을 뒀다.

항공산업 외에 다양한 부문에서 민간의 교관으로 국격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았다.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을 맡아 2004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코망뎀 훈장, 2015년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그랑도피시에를 수훈했다. 몽골로부터는 2005년 외국인에게 수훈하는 최고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받았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 루브르, 러시아 에르미타주, 영국 대영박물관 등 세계 3대 박물관에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70)씨를 비롯해 아들 조원태(대한항공 사장·44)씨, 딸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45),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36)씨 등 1남 2녀와 손자 5명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조원태 사장 체제 전환...경영권 방어 숙제

한진그룹 경영은 어떻게

조 회장 측근 사내이사 연임 불구
자녀들의 지주사 한진칼 지분 적어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재계는 한진그룹 경영권의 향후 전망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이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선 가운데 경영에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에서 조 회장 측근인 석태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고, 조 회장 측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6월 초 서울에서 대한항공 주최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ATA) 총회도 대표이사인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이 의장을 맡아 치를 수 있다. 일단 경영권은 조원태 사장이 승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한 조원태 사장은 2018년 말 조 회장이 요양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그룹 경

영 전면에 나섰다. 현재 조 사장은 지주사 한진칼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취약한 그룹 지배구조다. 조원태 사장의 지주사 한진칼 지분은 2.34%에 불과하다. 장녀 조현아(2.31%), 차녀 조현민(2.30%) 등 다른 자녀들의 지분도 크지 않다. 조양호 회장 지분(17.84%)이지만 50%로 예상되는 상속세와 특별관계자 할증 20% 등을 감안하면 자녀들이 물려받은 지분은 2.5% 남짓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이번 주주에서 표대결을 벌였던 국민연금과 KOGI의 합산지분은 20.81%다. 현재로서는 최대주주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비율이다. 조원태 사장 등 삼남매가 주시 장내매수 등의 방법으로 지분

율을 높이지 않으면 경영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관측 때문에 8일 한진칼의 주가는 장내매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20.63%나 급등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와 가족들이 관련된 수사나 재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하던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고 기각 판결이 유력하다. 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검이 수사하던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역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어져 종결될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씨의 형사재판은 장기미뤄지게됐다. 김재범 기자